신학
발표논문 01

요한계시록의 공공신학적 해석: 양극화를 넘어섬

송영목 고신대 교수[1)]

들어가면서

코로나19는 불평등을 넘어 양극화(兩極化)의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약 30%는 재정 및 보건위생에 있어 더 열악해진다.[2)]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에 관해 (신학 바깥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면서 비평적으로 탐구하는 공공신학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도덕적인 공동선과 웰빙을 촉진하려는 일환이다(렘 29:7).[3)] 사회에서 공적 시혜자(public benefactor)인 그리스도인은 양극화가 넘실거리는 공적 영역에서 신망애를 불어넣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참여하기 위해(롬 13:3; 벧전 2:15), 다차원적 해석 및 해결책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적으로 특징지어진 '공적 해석'(public criticism)에 더 익숙해야 하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4)] 이 글의 목적은 최근의 자료와 논의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공공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방안을 찾아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을 찾는 데 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자 간본문의 보고이므로, 오늘날의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신학적으로 탐구할 가치는 충분하다. 요한계시록은 상황화 관점으로 연구된 바 있지만,[5)] 계시록의 공공신학적 해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연구의 목적과 틀을 염두고 둔 채, 본 연구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세 단계로 진행한다.

---

1) 고신대 신학과 gihakyun@daum.net

2) L. Sweet, "From Semiotic Exegesis to Contextual Ecclesiology: The Hermeneutics of Missional Faith in the COVIDian Era," HTS Teologiese Studies 77/4 (2021), 3.

3) T. Hughson, Connecting Jesus to Social Justice: Classical Christology and Public Theology (Lantham: Rowman and Littlefield, 2013), 10; H. Lalleman-de Winkel, "The Old Testament Contribution to Evangelical Models for Public Theology," EuroJTh 14/2 (2005), 95; I. H. Marshall, "Biblical Patterns for Public Theology," EuroJTh 14/2 (2005), 76-77; Koopman, "For God so loved the World," 425.

4) 신자유주의가 심화시킨 경제 양극화를 성경의 경제적 샬롬으로써 해결하려는 정무성, "Economic Shalom: Biblical, Theological, Missiological Explorations of Economic Polarization," 『선교신학』 58 (2020), 293-318; S. Paeth, "Whose Public? Which Theology?: Signposts on the Way to a 21st Century Public Theology," IJPT 10 (2016), 471, 482.

5) 예를 들어, B. C. Blackwell et als (ed), Reading Revelation in Context: John's Apocalypse and Second Temple Judaism (Grand Rapids: Zondervan, 2019).

첫째, 신약성경의 공공신학적 주해의 현황을 살피고 평가한다. 둘째, 양극화를 염두에 둔 요한계시록을 공공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셋째, 요한계시록의 공공신학적 해석으로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1. 신약성경의 공공신학적 주해 현황

신약성경의 공공신학적 해석에 나타난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 회복적 정의, 참 복을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구약 선지자들의 공공선교적 맥락을 이어받아 약자의 구원과 정의를 변호하는 사회적 혁신가와 예언자의 면모도 보이셨다.

(2) AD 1세기 상황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은 사죄라는 영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차원의 용서와 정치적 함의도 가진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회복시키고 공동선을 회복시키신다.

(3) 누가는 세상의 권세가들과 영적 세력의 반대에 맞서서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공공성을 변증한다. 공공신학은 다종교 사회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학과 세계관을 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교회와 만유의 머리로 승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혈연과 지연 등이 초래한 양극화를 해소하시고 세상 권력을 상대화하신다.

(5) 서신서는 선교적 맥락과 그리스도 사건에 정초해 있는 묵시 사상으로써 종말의 새 시대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대 사회적 변혁의 능력과 책임성을 고취한다. 특히 사도는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가진 이웃들과 사회-경제적으로 차별받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활용하고 새 생명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애쓸 것을 권면한다.

(6) 공공신학은 비평적 논리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성도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명을 중요하게 부각해야 한다.

2. 양극화를 염두에 둔 요한계시록의 공공신학적 해석

요한계시록에는 '묵시적 이원론'(apocalyptic dualism)과 맞물린 양극화가 다중적이고 다층적으로 표출된다는 특이점이 있다. 그런데 묵시적 이원론과 양극화는 무관하게 보인다. 하지만 계시록의 묵시적 특성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주종관계 그리고 그런 관계를 해결하고 새 시대를 도래하기 위해 만왕의 왕께서 급격하게 개입하심을 주요 내용으로 삼기에(계 11:15; 19:16; 21:5; 22:1-2),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전제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신학-종교적 양극화[6]

요한이 환상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내러티브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로마 황제와 유대인의 나라와 대결한다.[7] 사탄은 황제숭배 이데올로기(계 12:3; 13:1)와 예루살렘 성전 이념(계 11:2), 그리고 영지주의적 이단 니골라당을 수단으로 삼는다(계 2:14). 하나님과 사탄은 명예를 두고 대결하시는데 천상 예배라는 참된 예배(true worship, 계 4-5)와 황제숭배라는 반 예배(anti-worship)로 양분된다(계 13).[8] 그런데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이 황제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기존 사회-경제-종교 인프라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체제 저항 행위였다.[9] 요한의 눈에는 국가가 후원하는 (시민) 종교는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선민국가를 배타적으로 치켜세우며, 그들의 애국 행위는 우상 숭배적 국가 종교를 돈독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든다.[10] 따라서 사람이 예배하는 방식은 삶의 방식이 된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수신자들은 반복음적이고 교회에 적대적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주일 공 예배 이후에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하기 위해 공적 시혜자로 파송되어 살다가 피곤을 느끼면 복된 예배로 회복되어야 하고, 다시 그 사명을 사회에서 감당하기 위해 복을 받아 파송되어야 했다(계 1:4-6; 11:15; 22:21). 이처럼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를 형성한다.[11]

요한 당시에 참 예배와 거짓 예배의 대결에서 보듯이 종교적 양극화는 정체성의 양극화를 노정했다. 참 예배자는 제사장 나라이자 신부이지만(계 1:6; 21:2), 그 반대편에는 음녀가 있다(계 17-18). 참 예배자는 선교하시는 '일곱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지만(계 1:4; 3:1; 4:5; 5:6), 그것을 저해하는 악령의 활동도 있다. 위에서 디모데전서 2:1-10의 공공신학적 메시지에서 살핀 것처럼, 성도가 신원을 위해 기도할 때 공공신학적 작업을 수행한다(계 6:9-10;

---

6) 이원론(성과 속, 개인-사회 등)을 따르는 보수적 복음주의자와 더 통합적인 온건한 복음주의자 그리고 헤겔-마르크스적 급진적 에큐메니칼주의자와 극단을 피하려는 온건한 에큐메니칼주의자 사이의 '신학적 양극화'에 관해서는 C. B. Peter, "Theological Polarization and Biblical Synthesis," AFER 35/5 (1993), 289-91을 보라.

7) 이 글이 따르는 요한계시록의 '과거적 해석'은 사도 요한 당시의 종교,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을 철저히 고려한다. 참고. K. L. Gentry Jr., The Divorce of Israel: A Redemptive-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ook of Revelation, Volume 1 (Dallas: Tolle Lege, 2017), 65-83.

8) D. Flemming, Foretaste of the Future: Reading Revelation in Light of God's Mission (Downers Grove: IVP, 2022), 151.

9) Flemming, Foretaste of the Future, 153-54.

10) Flemming, Foretaste of the Future, 168-69.

11) N. Koopman, "Public Theology in (South) Africa: A Trinitarian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1 (2007), 202. 참고로 계시록의 찬송은 송영적 수사학을 통해 하나님을 공적으로 선언하므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정치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는 정치 과잉적 해석은 L. A. Powery, "Painful Praise: Exploring the Public Proclamation of the Hymns of Revelation," Theology Today 70/1 (2013), 74-75를 보라.

8:3-4). 하나님 나라의 공공신학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서 세상의 의미와 방향을 파악하기에 일종의 '세계관 신학'인데, 그것은 세상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적이다. 여기서 세상 긍정은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변혁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은 자신 속에 주어진 영생의 힘을 외적 실천으로 표출하는 경건을 추구한다.[12] 참 예배자는 세상 속에서 말과 행실에 분별력을 갖추어 이웃에게 정직, 정의, 사랑을 윤리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계 14:5; 참고. 시 15:2-5; 롬 12:1-2).[13]

로마 황제는 주변 세상을 압제하여 온 세상을 자신이 숭배하던 사탄의 통제 아래에 두려고 했다. 그러나 보좌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생명체를 상징하는 4생물,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24장로, 그리고 천사들을 사랑과 화합의 통치 아래 통일하신다(계 4-5; 참고. 엡 1:10).[14] 알쑤이스(J. H. Olthuis)에 따르면, 하나님은 소통의 방식으로 만유 안에 충만하신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심'(with-ing)은 그분의 열정 덕분이며, '연민'은 그분의 최선의 이름이다(계 7:15-17).[15] 그리고 세상의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며(ex amore),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역동적 사랑에 참여함으로써 발견한다.[16]

(2) 사회-경제적 양극화

요한 당시에 사회와 경제는 종교와 한 덩어리였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혼합주의자들로서(계 2:14-15; 3:15; 13:1, 11), 어린양을 따르는 사람들을 특히 종교와 경제 측면에서 박해했다(계 13:17; 14:1, 4). 계시록 18:12-13의 경제적 약탈과 착취는 거만함, 폭력, 그리고 비인간화를 일삼는 불신 유대인들의 악행을 가리킨다. 로마제국과 불신 유대인들은 자신의 권력 욕망을 맘몬이라는 대표 상징으로 표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따라서 요한에게 경제는 결코 가치 판단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기에, 신학 및 윤리적 비평이 필요하다. 요한 당시 초대교회는 정교-정치적 이유로 인해 경제적 약자였으므로, 오늘날에 적용할 때 교회가 추구할 경제 윤리는 특히 빈자가 가난을 벗어나도록 배려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12) J. Shim, "Reformed Theology as Worldview Theology: The Public Nature of the Gospel and Spirituality," Pro Rege 42/4 (2014), 23-24.

13) D. C. Ortlund, "Reflections on Handling the Old Testament as Jesus Would Have Us: Psalm 15 as a Case Study," Themelios 42/1 (2017), 83-87.

14) C. J. Rotz, "The One who sits on the Throne: Interdividual Perspectives of the Characterization of God in the Book of Revelation," (D.Litt. et Phil. Thesis, Rand Afrikaans University, 1998), 93-94, 11, 126.

15) J. H. Olthuis, "A Vision of and for Love: Towards a Christian Post-Postmodern Worldview," Koers 77/1 (2012), 6.

16) Olthuis, "A Vision of and for Love," 6.

로마제국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팍스 로마나 아래로 포섭하려고 무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시민권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은 자신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로마제국인가로 갈린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다(계 21:24).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제국 방식의 강압이 아니라, 인내와 비폭력적 선교로 이루어져야 한다. 천국과 황제의 나라는 글로벌화에 있어 유사하지만, 그것은 실체와 패러디라는 양극화로 묘사된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와 정의의 나라이지만(계 4:3; 10:1) 사탄의 조종을 받는 로마제국과 유대 나라는 불의로 가득하다(계 18:5).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을 남용한 권세가들은 신적 시혜자(εὐεργέται)가 될 수 없고, 인간 피조물의 차원에 머문다(참고. 눅 22:25; 벧전 2:13).[17] 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적 소명을 따라서, 공적 부정의와 악한 권세와 추함에 대하여 공적 비평을 통해 진리를 드러낸다.[18]

요한 당시에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수치와 명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명예를 얻지만, 배교는 수치에 빠트린다. 이런 양극화는 후견인이신 하나님에게 충성할 때 가능하며, 피후견인인 교회는 거짓 후견인인 사탄이나 황제에게 기웃거리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어린양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사는 것이며 음녀는 부정할 뿐이다. 요약하면, 소아시아 7교회는 명예와 수치, 후견인과 피후견인, 그리고 정결과 부정이라는 양극화 중에 선택하여 결단해야 했다.

팍스 로마나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내재 된 정치적 비전에 충실하다면 정치를 외면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사회와 공공선을 꿈꾸며 공동체적 힘을 발휘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선을 추구하는 정치 집단과 같은가?[19] 교회를 '정치 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더욱이 종교성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서 거부감을 유발한다. 더욱이 정치는 그리스도인을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그런 분열을 통합으로 이끌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복음조차 정치관의 차이 앞에서 자주 무력화된다.

(3) 심판과 전쟁이 초래한 생태 양극화

성부 하나님과 만왕의 왕이신 성자께서 전쟁을 통해 교회의 대적을 심판하신다(계 19:16). 하나님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사회 질서를 정의로 심판하신다(계 6:15).[20] 하나님의 심판은

---

17) 참고. Scott, "Political Corruption in the Gospels and the Book of Acts," 47.

18) Kaemingk (ed), Reformed Public Theology, 6, 14–15.

19) E. K. Hoffman and L. Hoffman, "James K. A. Smith's Awaiting the King: Reforming Public Theology," Christian Higher Education 17/5 (2018), 326–27.

20) Keener, Revelation, 228.

악인들의 회개를 돕는 수단이기에 회복적 정의를 추구한다(참고. 눅 15장의 회복적 정의). 그런데 심판의 도구인 전쟁은 자연 파괴를 초래한다(계 8:8). 반면 그리스도 사건으로 시작된 신천신지는 재림으로써 완성될 것인데, 거기는 심판이나 파괴가 없다(계 21:1, 5).[21] 어린양의 사역은 생명을 일으키지만, 붉은 용과 바다짐승 그리고 땅 짐승이라는 소위 '사탄의 삼위일체'는 파괴를 일삼는다. 이 사실을 '말씀의 칼'과 '제국의 칼'의 양극화가 대변한다(계 1:16; 13:10, 14; 19:15).

(4) 박해와 재앙의 양극화

로마제국과 불신 유대인들은 소아시아 7교회를 박해했지만, 어린양의 심판으로 재앙을 당한다. 이 사실은 계시록 6-16장의 7인, 7나팔, 7대접 심판, 그리고 계시록 20장의 유황불 못의 심판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박해는 일시적이지만, 교회의 대적이 받는 재앙은 영원하다. 박해 중에서 어린양의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은 의로운 행실이다(계 19:8; 참고. 롬 13:14; 골 3:10). 그 옷은 그리스도인이 사랑, 믿음, 섬김, 그리고 인내를 실천하는 것이다(계 2:19). 어린양의 신부는 혼인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박해를 이겨내야 한다.[22]

(5) 복과 재앙의 양극화

재앙의 반대편에 계시록의 7복이 있다(계 1:3; 14:13; 16:15; 19:9; 20:6; 22:7, 14). 앞에서 살핀대로, 산상설교의 8복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듯이, 계시록의 7복도 그런 공적 특성을 가진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실천하는 복은 교회당 안은 물론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다(계 1:3; 22:7). 이런 복된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의로운 행실을 갖추고 회개해야 한다(계 14:13; 16:15; 19:9; 20:6; 22:14). 따라서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8복과 승귀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약속하신 7복은 개별 그리스도인이나 한 교회가 누려야 하는 차원을 포함하지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기 위한 공적 복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복과 재앙은 식사의 양극화로 설명된다. 예수님은 신부는 신랑이신 어린양이 베푸시는

---

21)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그들(미국 복음주의 우파)의 과한 긍정은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경계심을 압도하고 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다면 탐욕과 이기심을 자제하기 매우 어려운, 타락한 존재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여러 학자가 지적하듯 이기심과 탐욕이 기능하는 자유시장경제를 무한 긍정하는 태도와 환경적 청지기직은 양립하기 어렵다." 김대중, "지구온난화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 다른 대처," 『성경과 신학』 99 (2021), 84.

22) Kaemingk (ed), Reformed Public Theology, 148.

혼인 잔칫상에서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린다(계 19:7-9). 반면 음녀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와 성도의 피를 마시다가(계 17:2; 18:24),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잡아 먹힌다(계 17:16; 19:18). 어린양께서 배설하시는 잔칫상에서 생명나무의 열매와 감추인 만나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성도는 영적 그리고 물질적 기근과 굶주림을 없애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계 2:7, 17; 3:20; 7:16; 10:10).

(6) 현실과 이상의 부조화로 나타난 양극화

계시록의 1차 독자는 7복을 약속받았음에도 현실과 믿음의 세계의 불일치를 경험했다. 수신자들이 견지해야 할 믿음의 상징 세계는 계시록 4장 이후의 보좌 환상이 잘 보여준다. 소아시아 7교회는 이런 부조화를 상징 세계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써 극복해야 했다. 교회가 절망하기 쉬운 상황에서 절망을 이기는 종말론적 소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먼 미래를 바라보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의 현재적 능력을 믿어야 하며, 더불어 소망으로 미래의 멜로디를 듣고, 믿음으로써 거기에 맞추어 춤추어야 한다.[23]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현저히 구별된 삶의 방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대안 세력과 같다.[24]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게 공적 기쁨을 가져다준다(계 18:20; 19:1-8). 그러나 음녀와 그녀의 추종자들은 공적 슬픔과 두려움과 애통에 빠져든다(계 18).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 속에 자신의 생명과 역동성을 보이시는데, 현실과 이상의 부조화를 겪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현존과 사역을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영안이 열린 성도는 공적 광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행동을 추구한다.[25]

(7) 시간 및 공간의 양극화

다른 신약성경처럼 계시록에도 '이미'(계 11:15; 12:10-12)와 '아직 아니'(계 20:10; 21:1)라는 시간적 긴장 혹은 양극화가 있다. 어린양의 구원과 세상의 재창조는 현재 진행형이다(계 21:5). 물론 교회와 세상의 새 창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완성될 것이다. 이처럼 공공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는 시간을 분별한다(참고. 대상 12:32).[26]

---

23) D. A. Forster, "What Hope is there for South Africa?: A Public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Role of the Church as a Bearer of Hope for the Future," HTS Teologiese Studies 71/3 (2015), 9, 12.

24) Kaemingk (ed), Reformed Public Theology, 17.

25) Kaemingk (ed), Reformed Public Theology, 311.

26) Kaemingk (ed), Reformed Public Theology, 16.

'도시'라는 공적 공간(publi-city)도 양극화와 관련있다. 큰 도시 음녀 바벨론(계 17-18)과 하늘의 도시 새 예루살렘(계 21:2-22:5) 간의 양극화가 있다. 전자는 음녀이고, 후자는 신부이다. 따라서 이 둘은 물리적 공간의 양극화라기보다 교회의 대적과 예수님의 신부라는 두 공동체의 대립으로 파악해야 한다. 음녀와 신부는 사탄과 하나님이라는 상반된 '영적 공간'에 각각 거하는데, 전자가 심판당하는 '애가적 도시'(lamentational city)라면, 후자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송영적 도시'(doxological city)이다.

하늘과 땅/바다 사이의 공간적 양극화에 주목해야 한다(계 12:7, 12; 21:2).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를 약속의 땅과 열방을 상징하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거부한다. 종말의 개시자(알파)요 완성자(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시간의 긴장과 양극화는 해소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연결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공간의 양극화도 해소된다(계 10:1; 12:7, 12). "하나님의 가치(속성과 사역)에 초점을 둔 예배는 하늘을 가장 가까이에서 미리 맛보도록 만들고, 성도는 종말의 선금(down payment)인 성령님 안에서 그것을 경험한다(고전 2:9-10; 고후 1:22)."[27] 이처럼 참된 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양극화를 모두 해소한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바울처럼 요한도 그리스도 사건으로 추동(推動)되는 묵시 사상으로 양극화를 해소한다.

소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의 목회적 돌봄 아래 묶여 있었다. 터키 서부의 넓은 지역에서 이 공교회가 실천하는 "덕은 성육화 되고 구체화 된 실천적 가치이다. 덕이 개인과 공적 차원에서 계발될 때, 모든 사람을 위한 존엄의 삶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한다."[28]

더불어 계시록 내러티브에서 큰 분량을 차지하는 공간은 환상이다. 이 환상이라는 가상공간은 하나님의 계시가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구현되며, 참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이다.[29]

(8) 요약

요한은 자신의 묵시-예언-편지에서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신학-종교적 양극화, 반기독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소외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전쟁과 심판이 초래한 생태적 양극화, 일시적 박해와 영원한 재앙 간의 양극화, 복과 재앙의 양극화, 이상적 미래를 소망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발생하는 현실과 이상의 양극화, 그리고 영원한 미래와 완성될 하늘과 대비되는 땅과 바다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의 양극화를 제시한다. 독자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영원과 완성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상징

27) Keener, Revelation, 180.

28) Koopman, "Public Theology in (South) Africa," 204.

29) 송영목, "성경의 가상공간과 선교적 함의," 『고신신학』 24 (2022), 285-311.

세계를 잊지 말고 소외와 박해 중에서라도 매일 올바르게 결단하며 살아야 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복을 보여주고, 대적의 성문 곧 악의 세력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할 것이다(참고. 창 22:17). 복음서와 바울과 베드로의 서신이 기독교와 복음의 특유성과 공공성 그리고 공동선 지향성을 변증하면서 필요시 로마제국의 행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면, 황제숭배 강요와 제국의 공식적인 박해를 배경으로 하는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양극화와 그것의 해소 방안을 반로마적 메시지에 직접 담되 묵시 사상과 이원론적 방식으로 언급한다.

3. 나오면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한 요한계시록의 공공신학적 제안

20세기 중순 이래, 신학은 학계에서 비 객관적 학문으로 경시되다가 20세기 후반에 학계로 귀환했지만 교회와 사회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비판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세상에 구현하기 위한 신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공공선교신학이 중요하다.[30]

만유의 창조주와 섭리자 그리고 구원자이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밝히는 성경 각 권은 나름의 색채로 공공선교신학을 그려낸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선하신 분으로서 공동선을 실천하셨고, 심지어 자신의 원수와 죄인들에게도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회복적 정의를 선물로 주셨다.[31] 그러므로 공공신학은 마땅히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신약 복음서와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에 나타난 공공신학은 요한계시록의 공공신학과 상호보완되어야 큰 그림이 완성된다. 그리고 계시록은 정경의 결론이므로 공공신학의 요소를 통합한다.

요한계시록의 묵시적 이원론은 양극화와 연결된다. 이점은 계시록의 공공신학적 해석을 정립하는 데 중요하다. 계시록의 공공신학은 계시록 자체에서 공공신학적 요소를 찾는 작업이며, 계시록의 공공신학적 해석은 공공신학적 틀과 방법으로 계시록 본문을 먼저 주해하고 후에 적용하는 작업이다. 위에서 살핀 바처럼, 전자는 묵시적 이원론의 빛에서 탐구가 가능하다. 후자는 공공신학의 틀과 방법을 먼저 정립한 후에 본문을 조망할 때 가능하다.[32] 계시록의 공공신학적 요소로부터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그리스도인의 공공-선교적 실천에서 성령님의 역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계 5:6).[33]

---

30) 정의환, "신학의 공공성과 그 사회적 함의: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전망," 『가톨릭신학』 40 (2022), 34-38.

31) C. Constantineanu, "God in Public: A Prolegomena to Public Theology in the Romanian Context," Journal of Humanistic and Social Studies 8/1 (2017), 175.

32) 계시록에 해당하는 적절한 공공신학적 틀과 방식이 있는가? 계시록에만 적실한 공공신학의 틀과 방법이 있다기보다, 앞에서 살핀 바처럼 신약성경의 공공신학적 해석의 방법과 결과를 계시록에 적용하면 된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전체의 역사적 배경은 박해 상황이며, 하나님 나라 신학과 공공-선교적 경향,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묵시적 특성을 공유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신학이 자주 간과하는 바이다. 예배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는 "건강한 공적 예배에서 최선의 공공신학이 도출된다."(참고. 계시록의 신학-종교적 양극화).[34] 그리고 계시록에서 성령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그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의 선교를 주도하시는 영이시다. 이 대목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밝히는 구속사적 해석은 선교적 교회를 포섭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창조 활동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은 가라앉는 배와 같은 세상을 넋 놓고 바라보거나 그 안의 사람만 구출하기보다. 그 배 자체를 창조적이고 건설적으로 구출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려 한다.[35] 세상을 파괴하는 한 요인인 양극화는 하나님의 정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그렇다면 양극화를 창조적이면서도 건설적으로 구출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서 통전적 회복과 정의는 중요 가치인데, 그것은 인위적인 차별과 독점 그리고 배타성을 거부한다.

(2)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행실로써 주님과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계 14:4). 그리스도인에게 덕은 공적 성품이자 공적 명함과 같은데,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서 자신의 '종교적 형상'만 회복시키지 않으셨고 전인을 회복시키셨다.[36] 보좌 위에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공적으로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정체성을 모든 영역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37] 그리스도인은 시장이 신이 된 시대에 공동선을 실족시키는 큰 걸림돌은 경제 양극화임을 직시해야 한다.

개혁주의 공공신학은 교회와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다. 또한 그것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선교적 교회가 간학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다양한 공적 문제(탈도덕, 경제 양극화, 기득권의 부패, 출산율 감소, 질병, 난민, 성 및 인종차별, 환경문제 등)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선이라는 접촉점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의 그랜드 내러티브가 밝히듯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건설하는 세계관 신학이다. 이것은 사랑과 정의를 시행하시는 하나님, 복음, 그리고 교회가 원래 공공성을 띠고 있음을 전제한다.[38] 이런 공공성은 본문과 주석자의

---

33) 인간은 우주의 청지기이자 성령에 의해 고양된 공동체로서 성령으로 감동된 정치적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면서 교회와 사회에 사랑과 정의 그리고 공공선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은 슬로베니아의 오순절교회 소속 D. C. Augustine, The Spirit and the Common Good: Shared Flourishing in the Image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2019)을 보라. 하지만 성령의 공동체는 인류가 아니라 교회이다.

34) Kaemingk (ed), Reformed Public Theology, 18.

35) Kaemingk (ed), Reformed Public Theology, 11.

36) Shim, "Reformed Theology as Worldview Theology," 28.

37) Shim, "Reformed Theology as Worldview Theology," 28.

38) "기독교 신학교육은 더욱 공적 탐구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미국 주류 신학교육은 개인의 여정을 강조하는 것 같다. ..... 만일 신학교육이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면, 이 두 사항은 모든 피조물과 연관됨을 기억해야 한다. 신학교육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중요한 공적 영역은 더 넓은 시민사회와 특히 세상과 우주이다." D. N. Hopkins, "The Purposes of Theological Education," Theological Education 51/2 (2018), 46.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주해할수록 더 풍성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다른 신학 분과들처럼 개혁주의 공공신학은 신학 바깥의 분과들보다는 먼저 주경신학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은 후, 특히 선교적 교회와 공공실천신학과 접맥되어야 한다. 신앙고백을 존중하는 신학 분과들의 통섭으로 구축되는 개혁주의 공공신학은 인간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생물학, 그리고 법학 등으로부터 간학제적 통찰을 요청한다.[39] 하지만 "고립된 채 사유하고 그것으로 교만하다면, 그 결과는 멍텅구리가 되는 것이다"(G. K. Chesterton).

(3) 그리스도인은 회복적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계 15:4; 19:8). 하나님의 주요 속성을 요약하면 사랑과 진리와 정의인데, 그리스도인은 회복적 정의를 진심으로 추구해야 한다(계 11:13).[40] 그러나 온 세계에 악자나 공동선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경제적 착취, 자국을 과대 포장하여 선전하는 거만함, 민주주의와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패권을 잡으려는 폭력성, 그리고 난민이나 유색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끊이지 않는다(참고. 계시록의 사회-경제적 양극화).[41] 이에 맞서 그리스도인이 신앙공동체 안팎에서 올바르게 실천하려면, 그런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요소들을 사회과학 분과들과 소통하여 파악해야 하고,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신학적 목소리로 들어야 한다.[42] 이때 그리스도인은 신앙 고백적 자세를 유지하고 종교혼합주의를 경계하면서 교회와 세상을 실효성 있게 섬기는 '공공실천신학'(public practical theology)을 수행해야 한다.[43] 실천신학의 대상에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물론 교회당 바깥의 공적 영역을 포함하면, 새 생명과 새 에토스를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공적 영역에서 당면하는 이슈를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해결할 방안을 '공적인 목회 돌봄'(public pastoral care)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다.[44]

(4)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참고. 계시록의 박해와 재앙의 양극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는 주요 수단은 전쟁인데, 구약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서 큰 비중을

---

39) K. T. Resane, "Populism versus Constitutionalism in South Africa: Engaging Public Theology through Dialogue," In die Skriflig 56/1 (2022), 6.

40) Shim, "Reformed Theology as Worldview Theology," 29.

41) 참고. Flemming, Foretaste of the Future, 178-80.

42) G. Aziz, "Youth Ministry as a Public Practical Theology: A South African Evangelical Perspective," HTS Teologiese Studies 78/1 (2022), 3.

43) 공공실천신학에서 특히 성인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하는 '교리교육'은 계시와 전통에 기반하여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과 내면과 외면적 삶을 형성하여 글로벌 및 다원적 사회에서 이슈들을 적절히 해석하도록 돕는다는 주장은 S. G. Jang, "Constructing a Public Practical Theology: A Trinitarian-Communicative Model of Practical Theology for the Korean Public Church," (Ph.D. Thesi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2002), 235-53을 보라.

44) Magezi and Nanthambwe,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Church," 7.

차지한다(계 6:4).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에서 중요한 공공신학적 문제이다. 세계 교회는 핵무기 포기를 강조해 왔지만, 핵무기 소유국들은 감축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은 핵무기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불안과 적대감을 줄이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며, 핵무기의 필요성을 대두시켜서 온 세계에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을 거부해야 할 때다.[45]

(5) 그리스도인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균형 있는 정치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지혜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 부패하고 무능한 통치자를 세우신다(예. 네로, 헤롯, 그리고 현대 대통령). 권력가의 부패는 교묘하고 기득권층이 현상 유지를 구사하는 기만과 술수는 다양하고 만연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적 의식을 교육하고, 그런 의식으로 공동선을 구현하는 정치인을 양성해야 한다.[46] 공공신학은 현실 문제를 성경의 진리에 담아서, 비평적으로 논증하되, 그리스도인이 실천적으로 적용하도록 제시해야 한다. 이때 정책입안자들이 이런 연구와 결과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한다면 이상적 시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상적인 결실은 공공신학이 가급적 비신학적 용어로 진술되고, 간학제적 통찰력을 활용할 때 더 가능할 것이다.[47] 그리고 공공신학으로서 개혁신앙은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근본주의와 같은 기독교 이념이나 신자유주의와 같은 사조를 분별하고 배격해야 한다.[48] 교회는 물론 세상을 섬기려는 모든 신학은 공공선교신학이다. 이에 관해 황경철은 정치 과잉과 편향에 빠진 한국교회에게 소극적이지만 비교적 적절하게 조언한다. "세속 정치를 교회가 변혁을 이유로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 '소박한 공동선'과 '보편적 정의'를 따라 평화로운 공존을 보존하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정치신학적 비전이 아닐까 사료된다."[49]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일반은총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시연하는 특별은총, 이생과 내상의 정치와 문화의 연속성(계 21:26), 정치와 문화를 비롯한 각 영역은 구속과 회복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갖추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통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공동선과 선교를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50]

---

45) M. Cohen, "Nuclear Weapons and the Christian: Disarmament or Learning to live with Nuclear Armed Adversaries?" IJPT 14 (2020), 513–14.

46) Luka, "The Prologue of John," 210.

47) 개혁주의 공공신학이 다양성과 모호성 그리고 혼종성에 빠진다면 방향을 잃어 교회를 통한 사회 변혁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또한 공공신학자가 강조하는 종교 간의 협력이 기독교를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Contra Urbaniak, "Probing the 'Global Reformed Christ' of Nico Koopman," 527; Hughson, Connecting Jesus to Social Justice, 224–25.

48) V. S. Vellem, "The Reformed Tradition as Public Theology," HTS Teologiese Studies 69/1 (2013), 3–4.

49) 황경철, "제임스 스미스와 데이비드 반드루넨의 공적신학 비교 연구," (Ph.D. 논문,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22), 311.

50) 이것은 아브라함 카이퍼와 제임스 스미스의 입장인데, 이 세상과 내세를 불연속적으로 파악하면서 총체적 문화변

(6) 그리스도인은 번영복음이나 개발지상주의자의 탐욕에 맞서 생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참고. 계시록의 심판과 전쟁이 초래한 생태 양극화). 계시록은 세상의 갱신을 지지하는데(계 21:5),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대한 국가 정책의 지형 변화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보수 위정자나 정당은 환경에 소극적 정책을 펼치는데, 적극성으로 보완되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51] 다시 말해, 교회는 경제-정치는 물론 환경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대안을 가르쳐야 한다.

(7) 그리스도인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순수한 복음을 고수해야 한다(계 14:6-7).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복을 삶의 영역에서 증명할 때 실현된다. 그런데 포스트모던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의 배타적인 복음조차 공동선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한 가지 방식이다. 기독교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강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불평등과 두려움과 온갖 재난에 직면한 사회에 참된 영성, (인간 존엄과 약자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개선해가는) 가치, 지속가능성, 안정성, 그리고 소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52] 그런데 소위 '가나안 교인'의 제도교회로부터의 이탈 현상이 교훈하듯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달하는 공공신학자인 모든 크리스천의 에토스가 신뢰할만하고 매력적으로 훈련 받아야 한다.[53] 신약 서신서의 시작 인사말에서 보듯이, 공공신학은 복음 메신저의 에토스를 앞서 강조해야 한다. 그런 메신저가 공적 영역으로 나가기 전에 무엇보다 자신의 정치관을 성경으로 교정받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선교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려는 훈련을 거쳐야 한다.[54] 공공신학은 전문적으로 신학 훈련을 거쳐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신학자와 설교자가 교육하는 방식(top-down)에서 시작하되, 각 영역에서 선교적 교회로 활동하는 일반 성도의 실천적 경험과 통찰을 반영하는 방식(bottom-up)도 통합해야 한다.[55]

(8)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 신학자와 설교자는 신약성경이 가부장제를 비롯하여 온갖 차별과 배타성을 조장한다는 오해를 교정할 수 있어야 그런 가르침을

혁에 소극적인 데이비드 반드루넨과 차이가 난다. 참고. 황경철, "제임스 스미스와 데이비드 반드루넨의 공적신학 비교 연구," 211-85

51) E. W. Johnson and P. Schwadel, "Political Polarization and Long-Term Change in Public Support for Environmental Spending," Social Forces 98/2 (2019), 916, 931-34.

52) I. J. van der Merwe, "Publiek, Republiek en die Publieke Kerk," NGTT 49/3-4 (2008), 357; Constantineanu, "Theology for Life," 107.

53) Resane, "Populism versus Constitutionalism in South Africa," 7.

54) Resane, "Populism versus Constitutionalism in South Africa," 8.

55) Constantineanu, "God in Public," 173. 참고로 서구 신학적 방식으로 수행되는 획일적인 글로벌 공공신학은 공공신학 주체들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은 D. A. Forster, "African Public Theology?: A Conceptual Engagement to keep the Conversation Alive," In die Skriflig 56/1 (2022), 2-3을 보라. 그러나 개혁주의 공공선교신학은 연구자와 상황의 다양성을 인정하더라도 포스트모던 상대주의나 해체주의식 비결정성과 결론을 용인하지 않는다.

받는 회중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도 당당하게 소통하며 복음을 변증할 수 있다(막 15:40-41; 눅 10:38-42; 갈 3:28; 엡 5:23). 한 예로, 계시록이 음녀의 파멸을 즐기는 여성 혐오자의 광기 어린 작품이 아님이 적절히 논증되어야 한다. 성경 본문의 의미에 담긴 원리와 함의가 현대 독자와 상황을 결정하고, 페미니즘과 같은 현대 상황과 사조가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지 않도록 만든다면, 본문의 의미를 해체하고 과도하게 상황화하는 우를 피할 수 있다.[56] 공공-선교적 교회가 지속 가능하고 샬롬이 깃든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동참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통전적 복음에 담긴 사회-정치적 함의를 발견해야 한다(롬 14:17).[57] 개혁신학은 교회만을 위하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데까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와 신학교 그리고 기독교 기관이 연대하여 '공공선교신학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공적 진리와 사랑과 정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사회의 공동선과 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신학은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주해로부터 도움을 더욱 받아야 하고, 공적인 토론과 논의에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

56) 참고. E. M. Cornelius, "Can the New Testament be blamed for Unfair Discrimination of Domination in Modern Societies?" In die Skriflig 56/1 (2022), 3-6.

57) Constantineanu, "Theology for Life," 109.